

## ‘예술아파트’에선 주민도 예술가

광주수완 영무예다음 창작스튜디오에서 배운 솜씨

그림 그리고 도자기 빚어 이색 전시… ‘행복촌’ 꾸며

“안녕하세요 102동 사는 서영이 엄마예요, 참이쁘게 도자기를 빚으셨군요. 제가 그린 동양화도 한번 감상하시죠.”

지난 7일 오후 1시 광주시 광산구 수완택지구 영무예다음 아파트 단지에서는 주민들의 이야기꽃이 하루 종일 이어졌다. 주민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가을문화대축제’가 열린 이곳에는 주민과 작가들의 작품이 화사하게 수놓았다.

평소 자동차를 즐기며 놓여 있던 주차장에도 도자기와 동양화가 장식돼 있었다. 부모들은 작품을 보느라 걸음을 멈춘 아이들의 팔을 끌어 보자마자 이내 함께 감상하기 위해 멈춰섰다.

이날 ‘가을문화대축제’에는 20여명의 주민과 작가들이 100여점을 선보였다. 서예 작가들은 각 가정의 기준을 써줬고, 색소폰 공연도 펼쳐졌다.

주민들이 봇을 들기 시작한 것은 지난 8월, 현우(한국화), 백준선(문인화), 윤일권(한국화), 이용철(도자기)씨 등의 작가들이 이곳으로 작업실을 옮기면서부터이다.

(주)영무건설·토건(대표 박현택)은 다른 층에 비해 인기가 없는 아파트 1층을 과감하게 창작스튜디오로 만들어 이를 작가에게 각 114㎡ 규모의 공간을 무료로 나눠줬다.

주민들은 이곳에서 아무 때나 작가들의 작업 모습을 지켜봤고, 일주일에 4차례 작가들의 작업실에서 그림과 도자기, 공예 등을 배웠다.

창작스튜디오 안에 전기기마가 설치되어, 직접 생활도자기를 구워 가정에서 쓰는 주민들도 들었다.

방안에 틀어박혀 인터넷 게임만 하던 아이들의 변화도 눈에 띄었다. 아이들은 작가들의 작업실을 놀이터처럼 오가며, 걸려있는 작품을 보며 살아 있는 미술 교육을 받았다. 자연스럽게 봇을 들고, 흙을 빚는 아이들도 늘었다.

입소문이 나서 미술 수업을 의뢰하는 주변의 학교들도 늘었다. 아예 수업 장소를 이곳으로 옮겨 작가들의 설명에 따라 도자기를 빚고, 그림을 그렸다.

입주자대표회의 위성철 회장은 “다른 아파트는



도예가 이용철(왼쪽)씨와 주민들이 전시장에 출품된 자신들이 만든 생활 도자기를 보며 흰하게 웃고 있다.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데, 작가들과 함께 작품을 그리다 보니 이곳 주민들은 어느새 다정한 이미지 됐다”면서 “아이들도 가까운 곳에서 작품을 감상하다 보니 정서 발달에도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불쑥 작업실을 찾아와 시시콜콜 질문을 하는 ‘깐깐한 관객’들 덕분에 작가들에게도 변화가 왔다.

창작과 동시에 관객들의 반응과 평가를 작업

실에서 직접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작업에 열정을 쏟는다.

이용철씨는 “도자기를 굽는 주민이 줄을 이어 전기로가 한 달에 100만원이 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면서 “주거와 예술이 한 공간에서 꽃을 피울 수 있어 주민과 작가들이 모두 행복하다”고 말했다.

/오피니언 기자 kroh@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 ‘樹話 귀향’이 반갑지 않은 까닭

추상미술의 선구자 수화(樹話) 김환기(1913-1974)는 키가 크고 목이 길었다. 어느 날 조병화 시인이 왜 그렇게 목이 기나고 문자 거칠지에 대답했다.

“잘 알다시피 난 서사를 좋아요. 때문에 항상 육지가 그리워 목을 길게 뻗더니 그만 목이 길어지고 말았소. 특히 내 고향 앞바다에서 일본 원양어선의 기적소리를 들으면 미칠 것만 같았소. 그놈의 ‘부엉’하는 기적소리에 미쳐 노스텔지어에 빠지다 보니 목만 길어져 버렸다.”

신안 안좌도에서 태어난 김환기는 그의 나이 20살 때 ‘섬탈출’에 성공했다. 자주의 아들이었던 그는 1933년 일본 도쿄 니혼대에서 4년 동안 그림을 배운 후 고향으로 돌아왔다. 안제 옆에 초가로 된 화실을 지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집앞에 아름답게 펼쳐진 초목, 흙, 둥근 달을 그렸다.

하지만 이미 ‘바깥 세상’을 경험한 수화는 답답한 생활이 견딜 수 없었다. 결국 서둘러 이사를 간 그는 그곳에서 아내이자 예술적 동지인 김향안 여사(1916-2004)를 만났다. 1959년 4년간의 파리 유학을 마치고 흥미대 미대 교수로 안정된 생활을 했지만 1963년 돌연 뉴욕행 비행기에 올랐다. “조선의 달 항아리와 신안의 앞바다에 스며있는 한국적 정서를 세계인이 공감할 수 있는 조형언어로 표현하고 싶어서”였다. 당시 뉴욕에서 유행한 후기 색면주상 등에 영향을 받은 그는 단색조 화면에 점을 반복적으로 찍어 표현하는 ‘점화(點畫)’를 그렸다. 수많은 점들을 찍으며 그가 생각했던 것은 고향 앞바다에 떠있던 달과 구름이었다.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했던 그는 1974년 뉴욕 시립공원묘지에 안장됐다.

김환기 화백이 마침내 망향(忘鄉)의 한을 씻게 됐다. 지난 2일 신안군과 그의 아들 김화영 환기재단이 사장이 고인의 묘를 신안군 안좌도로 이장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군은 현재 미국 뉴욕시립공원묘지에 봉안돼 있는 김환기 미술관 부지에 마련할 계획이다. “아버지의 뜻에 따라 고향에 묘를 이장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한 그의 아들 말대로 뒤틀게 나마 고향의 품에 안기게 돼 다행스럽다.

하지만 그의 귀향이 마냥 반갑지 만은 않은 게 현실이다. 신안군이 예산 79억여 원을 들여 건립중인 ‘김환기 미술관’에는 그의 유작이 없다. 어디 수화뿐이라. 현재 고흥군이 추진중인 천경자 미술관에도, 화순 동복에 위치한 오지호 기념관에도 이를 작가의 대표작이 거의 없다. 내년 5월 개관하는 경기도 양주군이 천경자 미술관의 작품 1천 200여점을 전시하는 것과 달리 체색화 2점과 드로잉 300점이 전부다. 만약 수화와 천경자의 작품세계를 보고 싶다면 서울 환기 미술관(60점 소장)과 양주 천경자 미술관으로 가야 한다.

모처럼 건립하는 대가들의 미술관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는다면 예의 아니다. 이제 미술관은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소중한 관광자원이다. 거장의 이름에 걸맞는 미술관으로 건립하는 데 지원을 모아야 한다. 신안 앞바다를 우주의 고향으로 승화시킨 수화의 ‘공’(功)을 간파해선 안된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 “하서는 도학 실천한 참지식인”

〈성리학 대가 김인후 선생〉

탄신 500주년 앞두고 한·중·일 학술발표회

조선시대 성리학의 대가인 하서(河西) 김인후 선생(1510~1560) 탄신 500주년을 앞두고 하서 선생의 사상을 기리는 ‘하서 사상 국제학술발표회’가 6일 오후 장성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하서 김인후 선생의 사상과 현대적 의미’를 주제로 기조강연한 유승무 학부대학원원장은 “하서 선생 학문의 근간은 인도주의 정신에 근거한 도학(道學)과 중화(中和)사상”이라며 “윤리가 땅에 떨어지고 비인간화와 갈등으로 점철된 현대 사회는 선생의 가르침을 교훈으로 삼아 도덕성과 인간애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번째 발표에 나선 오종일 전주대 교수는 ‘하서 선생의 학문적 정통성과 중화의 실현’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선생은 주자의 이론에 머무르지 않고 공자의 가르침을 회복해 천명(天命)을 실현하고자 했으며 중화의 실현으로서 도학을 실천한 참 지식인이었다”고 설명했다.

시에광위 중국 안후이대(安徽大) 교수는 “선생의 사상은 북송 주돈이의 우주본체론에 근간을 두고 이를 발전시켰으며 시부 형식적 세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선 말기 성리학을 빛낸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사로 고에쓰(佐藤貢悅) 일본 쓰쿠바(筑波) 대 교수는 “선생의 저서를 보면 높은 학문과 고귀한 품질, 용기와 기개, 진심으로 국가를 생각하는 충성심 등 비견할 수 없는 역사적 위인임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이기동 성균관대 교수는 하서 사상의 근저가 된 윤리사상에 대



지난 6일 오후 장성군청 대회의실에서는 유승무 학부대학원원장, 김달수 울산 김씨 대종회장, 정남호 광주학교 유도회장 등 유림과 군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하서 사상 국제학술발표회’가 열렸다.

해 설명했으며, 쇠성당 한국전통문화학교 교수는 “하서 사상의 내용을 조금만 들어다 보면 그의 경제사상이 근본적으로 도학적 경제사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조선 말기 성리학을 빛낸다”고 주장했다.

하서 선생은 퇴계 이황 선생과 쌍벽을 이루는 조선 중기 유학자로 1543년 흥문관 박사 겸 부수찬이 돼 세자(인종)를 가르쳤다. 인종이 죽고 을사사화가 일어나자 고향인 강성으로 내려와 후학 양성에 힘써 호남의 유종(儒宗)으로 추앙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고전영화 진수 맛본다

광주극장 매달 두차례

16mm 필름으로 상영



‘큐풀라’ 있는 거리’

편 대신 생계를 책임지는 어머니, 그리고 자식들의 이야기를 통해 가족의 의미를 물고 있는 ‘큐풀라’가 있는 거리’가 상영된다.

지난달부터 한달에 두 차례씩 광주극장 2층 로비 오픈 시네마실에서 열리고 있는 상영회는 일본의 대표적인 고전영화를 16mm 필름으로 감상하는 행사다.

지난달 26일 신도 가네토 감독의 ‘벌거벗은 성’으로 첫 상영회를 진

행했으며 11월에는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일본 영화계의 거장 이마무라 쇼헤이 감독의 작품에 조감독으로 참여하며 두각을 나타낸 우리아미 기리오 감독의 영화를 상영한다.

이어 24일에는 학생운동이 가열쳤던 1960년대 후반 격변기를 배경으로 사랑의 본질을 과제로 두각을 나타낸 우리아미 기리오 감독의 영화를 상영한다.

무료행사로 참가를 원하는 사람들은 메일(riffifi@nate.com)로 신청하면 된다. 문의 062-224-585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 (02) 223-1140, 5210 월 011-802-2532  
(광주은행 신본점별, 대인동 소방서간판)

좋은 자리에 삼가  
건물을 싸게 사실분

상가 전문소개업체인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광주시내 전지역 상가중 점

포가 잘 형성되어 월세가 다

른지역보다 더 많이 나오고

앞으로 더욱 좋아질 비전있

는 곳으로 1층 점포가 4~5

칸 정도에 점포가 여러칸인

상가를 대표적인것만 골라

물건을 많이 확보하고 있어

일일이 광고하지 못합니다.

사장님께서 중요한 결정을

내리실 때에는 상가전문 소

개업체인광주에서 오랜전통

있는 저희 부동산에 꼭 한번

방문 하시면 책임지고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상무랜드공인중개사

☎(FAX) 383-5221 월 011-809-5221  
(구 상무대 정문)

▶빌딩(임대용, 투자용)

• 토지690평 건물4,500평(매기 210평)

보증금 100억/월세 5,000만원

• 토지690평 건물 750평(매기 98평)

보증금 40억/월세 2,000만원 월세 12억

▶토지(상무지구 상업지역)

• 희사(독, 별묘, 학원, 기타부지 등)

• 1,000평(업무용지)-매기 평당 750만원

• 250평(유용기능)-매기 평당 1,200만원

• 500평(상무상업)-매기 평당 1,200만원

▶기타용도

• (농지) 등산로 약 2만2천평 평당 12만원

• (농지) 산간을 대로면 약 3,000평

평당 300만원(미트, 예식장 등 적합)

• (온주기지) 등산로 2,000평 평당 450만원

원 가격에 50%할인(요양원 등 적합)

▶상가매매(상무지구, 상무역세권)

• 상가 150평(9층) 매매기 평당 450만원

개별등기 있음

학원, 복서실, 사무실 등 적합

• 세정 이율햇주변 역세권 상가 있음

대형의류매장(기능 전화상점) 환경

● 부동산 교환상담 환경 ●

맞춤주문 받습니다.